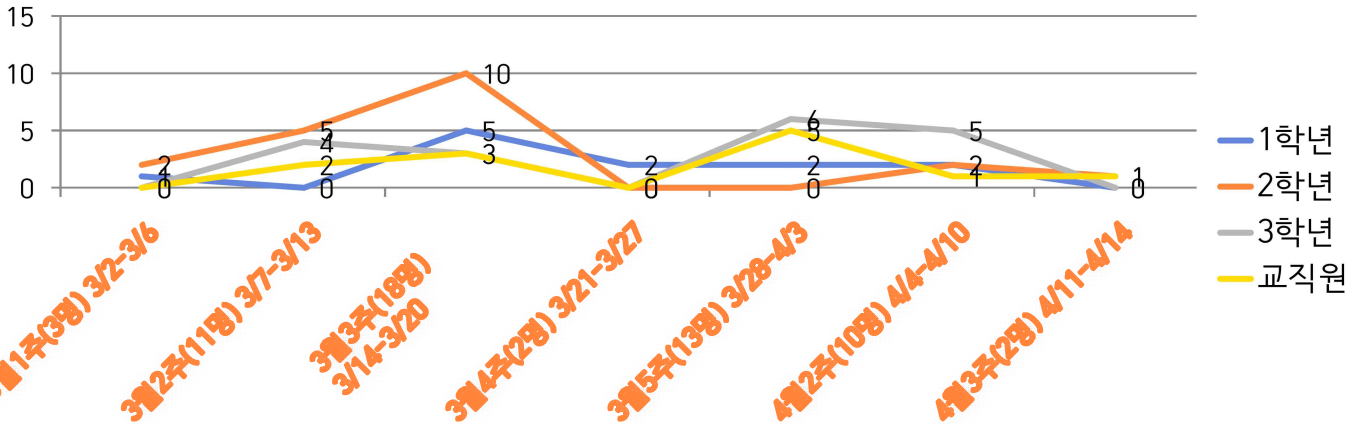


## 지평선중학교 3월2일~4월 현재 코로나19 확진 현황



\*3월14일 이동형 PCR검사 진행(총93명-학생69명, 교직원24명)/ 1명 확진

\*\*4월05일 이동형 PCR검사 진행(총75명-학생57명, 교직원18명)/ 2명 확진

\*\*\*3/2-4/17(현재) 누적 확진자 수: 58명(학생: 49명, 교직원: 9명)

학부모님, 반갑습니다.

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학교 방역지침 일부가 개정(뒷면 기재-2page)되었습니다. 하지만, 지평선중학교는 전국단위 기숙학교로 전라북도교육청의 **기숙사 방역지침**을 따로 안내받고, 적용하고 있습니다.

학생들이 집단 생활하는 학교 기숙사는 확진자 발생 시 감염 확산 우려가 매우 높은 시설로 기숙사 입사학생 대상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진단키트를 추가로 배부한다고 합니다.

이에, **지평선중학교는 종전과 같은 4월 중 주 2회(입사 전 1회 및 주중 1회) 신속항원검사 체계가 유지됨을 안내드립니다.** (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는 학교방역지침(6-1판) 적용)

### □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

○ 학생 감염예방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 이용 **선제검사(권고)** 도입, 선제검사 결과 '양성'인 경우 **PCR** 검사 실시

※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,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

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, 신속항원검사서 양성(재검출)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(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)

※ 다만,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,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

※ 동 기간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인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

○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**학교별 자체조사**를 실시하고, 아래의 **접촉자 조사** 참고 기준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

◆ 학교 자체조사 및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, 처벌 등을 적용하지 않음

#### <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>

대 상	검사방식(권고)	검사장소	등교 제한
고위험 기저질환자	① PCR 검사 1회*	선별진료소, 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	각 검사 결과 '음성'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
	*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,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서로도 대체 가능		
	② 신속항원검사 1회 (선제검사 1회 활용)	의료기관, 가정	
유증상자	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(선제검사 1회 포함)	의료기관, 가정 ※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현장 이동 형PCR 검사 활용 등	

※ 학교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: 확진자 다수 발생 학교 등의 학생·교직원 전용 PCR 검사 지원 등을 위해 시·도교육청에서 운영

※ (참고)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(5.13까지 한시 적용 연장, 반대본)

#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

□ 적용 시기 : 4.18.~4.30.

□ 개정 내용

- ① (학생 선제검사) 신속항원검사도구(키트)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하되,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\*

\* 선제검사 요일, 유증상자·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여부 등

※ 교직원은 기존과 같이 주 1회 유지

- ② (접촉자 관리) 확진자 발생 시 “같은 반 학생 전체”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“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·고위험 기저질환자”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

※ 진단검사는 교육(지원)청 또는 학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도구(키트) 활용

< 4월 유·초·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>

적용시기	~4.17	4.18~4.30
선제검사(권고)	▶ 주 2회	▶ 주 1회
자체조사 진단검사 (권고)	▶ 확진자의 같은 반 등 “전체”	▶ 확진자의 같은 반 등 “유증상자·고위험 기저질환자”
	▶ 3회(선제검사 2회 포함)	▶ 2회(선제검사 1회 포함)
	※ 고위험 기저질환자 : 3회 7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	※ 고위험 기저질환자 : 2회 5일 내 PCR 검사 1회, 신속항원검사 1회
	※ 그 외 학생 : 3회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	※ 유증상자 : 2회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

- ③ (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)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\*(4.11.~), 전문가 용 신속항원검사 ‘양성’ 확진자 인정 조치(~5.13까지 연장)

<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관련 자가진단앱 수정 내용>

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므로,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하여 주시고 [의료기관 등에서](#) 진료·검사받기 등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향후 계획

-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및 방역지침 변화 등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 추가 보완·안내 예정

# <지평선중학교 학교대응체계 안내>

## □ 현재 코로나19 관련하여 기숙사 호실을 3종류로 분리

1. **의심증상자**(주요 임상증상: 발열37.5℃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)발생시 따로 분리하여 취침, 등교하여 보건교사가 다시 판단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.
2. **코로나19 확진 검사일 기준 1주일 뒤 해제** 후 귀교한 학생들은 **3일동안** 따로 분리하여 생활(기존 확진되지 않은 학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함), 급성기가 지난 상태이지만,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.
3. **동거가족 확진**으로 PCR검사 '음성'으로 나올 경우 **10일동안** 수동감시 기간입니다. 이 기간동안 수동감시자들만 따로 분리하여 생활(10일의 수동감시 기간동안 확진되어 귀가하는 경우 발생)하고 있습니다.

## □ 학교 대응체계 관련

1. **학생의 증상이 심할 경우** 바로 병원진료를 보고, 약처방도 이루어져야 합니다. 부모님께서 학생을 데리러 오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, 담임교사 및 해당 시간에 수업이 없는 선생님께서 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, 진료를 보고 약 처방까지 받은 뒤 귀가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점심 이후 귀가하게 되면, 일시적관찰실에서 급식을 따로 포장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2. **학생의 증상이 경미할 경우** 담임교사 및 해당 시간에 수업이 없는 선생님께서 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'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'를 받고 있습니다.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'음성'으로 판정된 경우, 진료를 보고 약처방을 받고 학생의 상태를 수동 감시하며 수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.
3. 교사들은 각 교실에서 매주 수요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,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4. 코로나19에 확진된 교사는 재택근무를 통해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## □ 신속항원키트 사용 관련

1. 학생들이 증상이 있을 시 학교 내 비치된 신속항원키트를 이용하여 **초기 검사를 진행**합니다. 선제적인 예방을 위한 검사를 1주일에 2회 실시(1회-수요일/2회-일요일)하고 있지만, 학생들이 산발적으로 확진되다보니 신속항원키트 사용량이 많습니다. 이에, 확진된 학생 및 교직원의(확진 후 45일동안) 신속항원키트는 배부하지 않고 있습니다.
2.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, 코로나19 확진자와 **접촉으로 불안해하는 경우** 및 **검사를 원하는 경우**는 비치된 신속항원키트를 이용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